

교토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한·일 관계사

서울과 교토의 1만년

정재정 지음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궁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역저 ‘총, 군, 쇠’에서 이렇게 비유했다.



명하며 ‘한반도가 교양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말한다. 자칫 한반도 일대에 살아온 한국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역사 인식의 왜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토내 유적과 유물을 돌아보며 한국 역사문화가 음양으로 넓게, 깊게 얽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토에는 사원 1600여개와 신사 400여개가 있는데 한반도 일대에서 건너온 도래인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많다. 교토는 임진왜란의 발원지였다. 1592년 3월, 전국에서 결집한 군대가 교토를 출발해 규슈 최북단 나고야성으로 향했다. 임진왜란때 전공 증거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와 문은 이충(耳塚)이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포로로 끌려와 주자학을 가르친 강항 선생을 비롯한 피로인들의 피눈물이 배어있고, 왜군이 울산에서 개운 ‘오색팔중산동백’이 있는 곳도 교토이다.

교토는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이자 문화중심지였다. 간무천황이 ‘헤이안쿄(平安京=교토의 옛 이름)’를 수도로 정한 794년부터 메이지 천황이 도쿄로 정치거점을 옮긴 1869년까지이다.

이 책은 ▲교토의 시작과 도래인의 역할 ▲무가의 득세와 선종의 융성 ▲교토의 개조와 교류의 확대 ▲메이지 유신과 재흥을 위한 교토의 노력 ▲일본의 한국 지배와 한국인의 교토 ▲한일의 문명전환과 평화 공영모색으로 항목을 나눠 한일관계의 역사를 살핀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설



일본 교류지 ‘보관미륵보살반가사유상’(왼쪽)과 한국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쌍둥이처럼 너무나 닮았다. 1960년대 부러진 교류지 반가사유상 새끼손가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질이 한국 충양목(적송)으로 확인됐다.

다. 한국과 일본이 씨줄과 날줄이 돼 역사와 문화를 엮어왔다.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교토내 유물과 유적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물론 일사자의 현장감이 한층 생생하게 다가온다.

저자의 바람은 두가지다. 교토의 도전과 성취에서 교훈을 얻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런 역사의 무게를 지시하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실현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유문화사·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 갈대=라브호텔 집 딸로서, 어린 시절 호텔 잡일을 도우며 자랐다는 사쿠라기 시노의 소설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장편소설 ‘우리 갈대’ 역시 마찬가지다. 엄마에게 맞는 아이, 딸에게 매춘을 사주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애인과 결혼하는 딸, 불륜, 가출, 유괴, 살인, 놀라움 정도로 뒤얽힌 가족관계 등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서 희망의 싹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곧 인생일지도 모른다. 일본 WOWOW TV에서 드라마화 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비채·1만3000원〉

▲세네카의 인생론=세네카는 로마 시대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음모와 투쟁, 그리고 광기 어린 행동을 직접 겪어왔으며,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가 속해 있던 스토아 학파 역시 마음과 행복, 화와 용서, 돈과 명예, 노년과 죽음, 인생에 대한 현실적인 명제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책이다.

〈소울메이트·1만3000원〉

▲중국을 만들고 일본을 사로잡고 조선 을 뒤흔든 책 이야기=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낸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지’ 문화사. ‘삼국지 박사’ 이은봉은 역사를 뛰어넘은 역사소설 ‘삼국지’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책의 형태학(판본, 서지학)과 책의 내용학(문학·역사·철학)을 횡단하는 흥미로운 문화사를 펴냈다. 삼국지의 변화 과정을 모티브 삼아, 한국과 일본의 수용과 변화, 각색과 재창조의 양상을 치밀하게 묘사했다.

〈천년의상상·1만8000원〉

▲애 책 추진 접수합인가=국내 최고



접수합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의 전작 ‘문근식의 접수합 세계1’에서 다루지 못한 접수합 기동 특성, 접수합 탑재 무기 등 심도 깊은 접수합 관련 주제들을 정리해 수록하고,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핵 추진 접수합을 건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핵 추진 접수합을 건조할 것인지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리더는 누구인가=경영애 자신감을 잃은 사장이 자신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 갈 차기 사장을 찾아나간다는 줄거리를 통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리더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관하여 흥미롭게 서술한 비즈니스 소설. 책은 전부 열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은 ‘리더의 조건 열 가지’ 중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직장인 독자라면 현실에서 마주칠 듯 리얼한 책의 등장인물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봄·1만4500원〉

‘언어+이미지’ 입체적 관점에서 낯설게 보고 다르게 생각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닉 수재니스 지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는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화였다. 세심하게 표현된 블랙홀, 고대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만 행성과 밀러 행성, 율혹을 통한 행성 간 이동 등은 과학 이론에 바탕을 두지만 한편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압권은 5차원 공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5차원의 세상을 시각화함으로써



써 영화는 우리의 시야를 기존의 시공간 너머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인터스텔라’는 과학과 픽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차원 세계를 보여준 새로운 모델이다.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관점이 중요한 것은 인류가 대면해야 할 미래세계에서는 무엇보다 이 같은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닉 수재니스 샌프란시스코 교수가 쓴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는 언어와 이미지를 중첩시켜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 실험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언어는 사유의 주요 수단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반면, 이미지는 언어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돼온 게 사실이다. 여기서 ‘언플래트닝(unflattening)’ 하나의 관점을 뛰어넘는 입체적 관점이라는 뜻을 지닌다.

저자의 글쓰기는 “사유의 수단이 우리의 시야를 규정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사유의 수단으로서 텍스트

에 의존하는 동안 언어바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시돼 왔던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언어가 만들어낸 ‘인위적 한계’ 너머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자와 이미지를 ‘만화’라는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출간한 최초의 만화 철학책이라는 안내문 외에도 2016 아이너스상 후보작, 2016년드워드그래픽노블상 수상작, 2016프로즈상수상작에 선정될 만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 편의 다큐멘타리를 본 듯한 강한 여운을 남기는 책은 발상의 전환을 꾀하려는 이들에게 각별한 재미와 유익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세상·1만8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책

▲병아리 싸움=영원한 앙숙이자 친구인 자매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시 그림책. 자연을 인간처럼 이해하고, 인간을 자연처럼 이해하는 도정한 시인은 병아리 자매의 일상을 따뜻한 시로 그려냈다. 아웅다웅 다투며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병아리 자매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바우슬·1만1000원〉

▲세 번째 소원=어린 동생을 챙기다 보면 언제나 속상한 큰 아이, 3학년 누나 준희의 심리를 잘 표현한 동화. 왜 맨날 누나가 참고, 양보하고, 이해해줘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강요만 하는 어른들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까지. 하지만 누나와 동생의 사랑 갯말 싸움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노란대지·1만원〉
▲이오덕 선생님이=만화가 박건용 화가가 이오덕 선생님이 농촌 학교에서 참 교



육을 펼치는 행복한 교실을 만화로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오덕 선생님을 위인전처럼 위대한 인물로 그리지 않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배우며 고뇌하는 다정한 선생님이로 풀었다. 이오덕 선생님의 생각과 철학이 눈앞에 보듯이 펼쳐진다.

〈고인돌·1만4500원〉
▲신사임당 갤러리=16세기 전반기 조선 시대의 여류 화가이자 조선의 대표적인 현모양처로 꼽히며, 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적인 삶을 산 신사임당의 삶과 그림 세계를 들여다본다. 사회적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가로서 한 영역을 구축하며 뛰어난 작품을 남긴 신사임당을 만날 수 있다. 〈그린북·1만50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 A V E 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사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